

[보도자료]

한국오가는, '세계 여성의 날' 맞아 여성건강 증진 캠페인 펼쳐

- 여성건강 관심 환기 및 건강한 습관 제고하는 '더 건강한 일상 만들기' 캠페인 진행
- 걷기, 스트레칭, 명상, 자신만의 계획 실천 등 챌린지... 14일까지 '챌린저스' 앱 통해 참가자 1천 명 모집
- 글로벌 전사적으로 코로나 19 상황 속, 임직원 및 여성의 건강 집중 돌봄 시간으로 유급휴일 제공

2022년 3월 8일 - 한국오가는(대표 김소은)이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건강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며 건강한 습관 형성을 돕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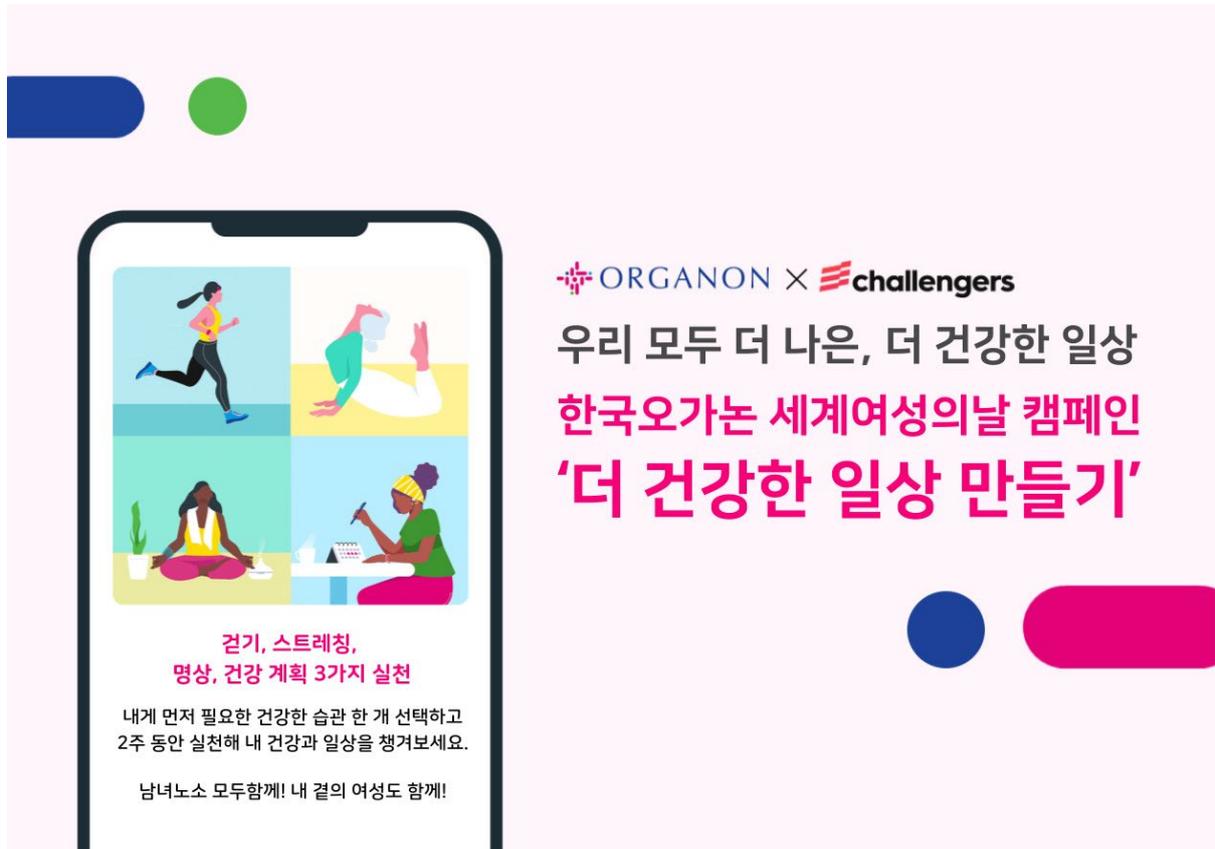
이번 캠페인은 '더 건강한 일상 만들기'라는 주제로 3월 14일부터 27일까지 2주 동안 건강한 습관 형성을 돕는 애플리케이션인 '챌린저스'와 함께 진행된다. 일상생활 속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을 우선시할 수 있도록 여성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하며, 모두가 일상생활 속 건강을 증진하는 습관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했다.

'더 건강한 일상 만들기' 캠페인은 ▲걷기 ▲스트레칭 ▲명상 ▲자신만의 건강계획 3가지 적고 실천하기 등 총 4가지 건강 챌린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총 2주 동안 매주 4회, 총 8회 이상 인증하면 된다. 챌린지를 성공한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는 스텝퍼를, 4명에게는 운동화를 증정한다. 총 1천 명을 모집하며, 오는 14일까지 챌린저스 앱에서 참가 신청할 수 있다.

한국오가는 김소은 대표는 "팬데믹으로 인해 가족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가사, 육아 등의 업무가 특히 여성들에게 가중되며,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어려움에 귀를 기울였다"며 "여성건강은 나의 가정, 그리고 우리 사회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로서, 이번 기회를 통해 나 자신은 물론 내 곁의 여성들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이들을 더 지지할 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가는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임직원 스스로 미뤄두었던 진료를 받거나 자신의 건강과 웰빙을 생각하는 등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주위의 여성건강을 돌볼 수 있는 집중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전 세계 9,500여 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번 세계 여성의 날을 유급휴일로 지정했다. 또한, 오가는 경영진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3월 7일 오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건강을 위한 전 세계적인 캠페인을 알리기 위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오프닝벨 타종 행사를 진행했다. 해당 행사는 실시간으로 중계되었으며, 여성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림과 동시에 여성들이 본인의 건강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사진자료]



[사진] 한국오가논이 여성의날을 기념해 습관형성 플랫폼 챌린저스와 '더 건강한 일상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사진=한국오가논]